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 컨트리 클럽

반복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월회 최대 3만원, 주회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synesty.co.kr 061320-7700, 7714

■ 김경문 올림픽야구 감독

“이병규 중심타선
해결사 역할 기대”



일본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사진)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전에서 야구대표팀의 중심타자로 활약할 전망이다.

김경문 야구대표팀 감독은 6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훈련을 앞두고 “이병규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하는냐”는 질문에 “이병규는 1년 동안 일본투수들을 직접 상대했다. 1, 2번 타순에는 빠른 선수를 기용하고 이병규는 무게감 있는 타선을 맡아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병규는 일본시리즈에서 타율은 낮았지만 자신감있게 시즌을 마친 것이 좋았다. 이병규의 능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일본에서 2군도 다녀오면서 플레이와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상비군 장원삼 느낌 좋아”

대표팀 발탁 가능성 시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원소 언지 수솔로 대표팀에서 빠져 공격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병규가 3~6번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병규는 일본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은 0.111에 그쳤지만 2점 홈런 등으로 5타점을 올리면서 찬스에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경문 감독은 “이병규가 대표팀에서 일본 얘기를 해주지 않겠느냐”면서 정보원으로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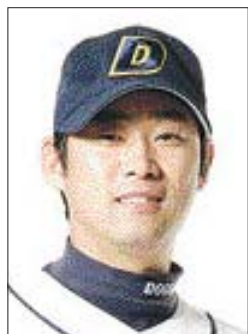
그는 이와 함께 대표팀 훈련 계획과 연습경기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전날 상비군과 연습경기 첫 경기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70~80%도 되지 않았다. 일본 오카나와에서 90%까지 끌어올린 뒤 올림픽예선을 치러야 한다. 오카나와에서 7경기 정도 상비군과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비군 소속으로 연습경기에서 호투한 장원삼(현대)에 대해서는 “선동열 감독도 원삼이에 대한 느낌이 좋다고 한다. 계속 호투하고 있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대표팀 발탁 가능성을 내비친 뒤 “일본에는 좌타자 가운데 좋은 선수가 많다”고 좌투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이어 “아직 첫 경기를 해서 선발투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는 이르다. 송승준과 이승환이 어찌 못 던졌지만 기회를 더 주겠다”면서 “투수 9명, 포수 2명, 내야수 5명, 외야수 8명을 최종 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두산 외야수 강동우 KIA행

투수 이윤학과 맞트레이드



KIA타이거즈가 6일 두산 외야수 강동우(33·좌투좌타·사진)와 투수 이윤학(25·좌투좌타)을 맞트레이드 했다.

경북고-단국대를 졸업한 강동우는 1998년 삼성에 입단해 2006년 두산으로 트레이드됐고, 포로 통산 92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1, 46홈런, 305타점을 기록했다.

한편 강동우는 양도 양수계약이 되는대로 일본 미야자키 현련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일본 미야자키현 마무리 캠프



‘뛰는 자만이 산다’...무한경쟁 돌입

내년 시즌 선발 목표
하루 10시간씩 맹훈련
조감독 “분위기 최상”

“털갈이는 끝났다. 맹호가 되고 싶다면 땀을 쏟아라”를 시즌 최하위의 수모를 겪고 단장, 감독 등을 전면 교체한 ‘호랑이 군단’이 일본 미야자키에서 내년시즌을 대비해 1대1 맞춤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탐금질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일본에 입성한 KIA선수단 40명은 도착 당일부터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위치한 오쿠라기하마구장에서 하루 10시간씩 맹훈련 중이다.

훈련 5일째인 6일에는 권운민과 이강서, 김선민, 김연훈 등이 오전 9시부터 특별 훈련으로 편성돼 오전내내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타격 및 수비훈련에 집중했다.

나머지 선수들도 오전 9시 30분 워밍업을 시작으로 베이스러닝, 배팅, 수비훈련에 비지땀을 쏟아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계속된 훈련에선 선수별로 주루플레이, 수비, 타격 등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코치와 1대1로 한조를 이뤄 기량을 연마하는 데 집중했다.

정식훈련이 끝난시간은 오후 5시. 이후 저녁식사와 탈출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선수단 전원은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개인 야간훈련에 들어갔다. 투수들은 웨도우핑칭(거울 앞에서 수건을 이용해 피



6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위치한 오쿠라기하마구장에서 KIA선수단이 순발력 향상을 위한 단거리 달리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KIA타이거즈제공

침 자세 연습)을, 야수들은 스윙이나 웨이트트레이닝 등으로 힘든 하루를 마감했다.

숙소에서 10분거리인 훈련장은 대규모 실내연습장까지 갖춘데다, 포근한 기온과 수려한 자연환경까지 천혜훈련 조건을 자랑한다.

다만, 지난 시즌 이곳에서 겨우내 탐금질을 하고도 최하위의 성적을 낸 만큼 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캠프는 좀 더 따뜻한 판, 사이판, 호주, 하와이 중 한곳을 골라 옮길 계획이다.

조범현 KIA 감독은 “선수단의 훈련 분위기는 최상이다. 올 시즌 최악의 성적을 냈다는 자책감 때문인지, 모두가 자발적이고, 성실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시즌 선발 라인업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야자키 참가 선수명단.

조범현 감독, 김종모, 구천서, 황병일, 김동재, 김봉근, 박홍식, 이강철, 곽현희(이상 코치), 유동훈, 이동현, 정원, 문현정, 고우석, 임준혁, 광정철, 박정태, 손영민, 박정규, 오준형, 이범석, 진민호, 전병두, 양현중, 전태현(이상 투수), 김상훈, 권운민, 백용환(이상 포수), 김종국, 손지환, 김정수, 김연훈, 이강서, 김선민(이상 내야수), 이종범, 심재학, 김원섭, 이용규, 최경환(이상 외야수).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SK “표 정상 도전”

표 왕중왕전 코나미컵 내일 개막



팀 창단 8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이번에는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SK는 6일 오전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7’이 열리는 일본 도쿄(8~11일·도쿄돔)로 출국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코나미컵은 한국과 일본, 대만 프로리그의 우승팀과 중국 올스타가 출전해 아시아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올 한국시리즈에서 두산과 4승2패로 격파한 SK와 일본시리즈 우승팀 주니치 드래곤스, 대만리그 정상에 오른 타이 라이온스와 중국 대표팀이 참가한다.

한국은 2005년과 2006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삼성 라이온즈가 2년 연속 출전했지만 각각 2위와 3위에 그쳤고 일본시리즈 우승팀인 지바 롯데 마린스와 니혼햄 파이더스가 잇따라 안방에서 우승잔치를 벌였다. 특히 한국은 지난 해 삼성이 대만리그 우승팀 라뉴 베이스에게 패해 결승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자존심이 구겨질대로 구겨졌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국내에서는 12월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벌어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전에 눈길이 쏠려 관심이 분산돼 있지만 김성근 SK 감독만큼은 코나미컵을 버리고 있다.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 기간 한국을 찾아 취재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코나미컵의 팀간 전력은 일본이 우세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국가대표끼리 붙는다면 해볼만 하다. 한국야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고 밝힌 그는 “코나미컵처럼 클럽팀은 아무래도 층이 얇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력이 처질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나미컵 아시아 시리즈 경기일정

날짜	시간	대진
8일	12시 18시	중국대표팀: 대만(통이) 일본(주니치): 한국(SK)
9일	12시 30분 18시 30분	한국(SK): 중국대표팀 대만(통이): 일본(주니치)
10일	12시 18시	일본(주니치): 중국대표팀 한국(SK): 대만(통이)
11일	18시	결승전



‘올림픽 티켓’을 잡으려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전인 우즈베키스탄 원정을 앞두고 6일 피추 NFC에서 열린 올림피아드 야구대표팀 훈련에서 골키퍼 정상용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축구대표 감독 인선

다음주부터 급물살

후보자 10명으로 압축

필 베어백 전 감독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인선 작업이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각급 축구대표팀 총괄 지원과 함께 코칭 스태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7일 저녁 이영무 위원장과 기술위원들이 모여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국내·해외 지도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방향을 잡은 뒤 다음주 공식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인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국내 10명, 해외 10명 등 20여명의 후보를 놓고 장·단점 검토를 거쳐 후보 군을 10명까지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술위원은 “일본에서는 국내 2명, 해외 2명으로 압축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국내와 5명, 해외와 5명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후보군에는 K-리그 가을 잔치에서 화려한 공격 축구와 놀라운 적응력의 용병술로 ‘그라운드의 마법’을 펼치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의 젊은 브라질 사령탑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과 올림픽대표팀 박성화 감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위원회는 그동안 대표팀 사령탑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국제 축구 흐름에 대한 이해도, 국제무대 지도자 경력, 전술 운용 능력,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과 카리스마, 코칭 스태프와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내년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한국 축구에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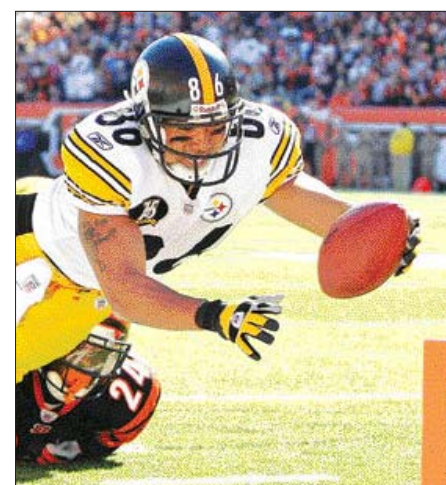
日, 2018 월드컵 유치 움직임

일본축구협회(JFA)가 2018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일본 스포츠신문지 스포츠호치에 따르면 JFA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2018년 월드컵 유치 검토위원회를 협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8월 전체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정식 발족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오구라 준지 JFA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7~8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와부치 사부로 JFA 회장은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한 뒤 여러 가능성을 찾으면서 아시아와 각국 움직임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NFL 하인스 워드 280야드 전진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1·피츠버그 스틸러스·사진)가 28야드를 전진하는 데 그쳤다.

와이드리시버 워드는 6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 필드에서 벌어진 정규 시즌 9주차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홈경기에서 터치 다운 없이 4번 패스를 받아 28야드를 전진하는 데 머물렀다.

지난달 29일 신시내티 벵갈스전에서 두차례 터치 다운을 찍는 등 88야드를 세도하며 올 시즌 가장 활발한 공격을 펼쳤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2경기를 결장한 워드는 이날까지 시즌 6경기에서 302야드를 뛰었다.